



## 브레이크비트와 파생 장르 입문서

브레이크비트(Breakbeat)는 현대 전자음악에서 널리 사용되는 독특한 리듬 양식이자 장르입니다. 간단히 말해, **브레이크비트**란 기존 음악의 드럼 브레이크(악기가 모두 쉬고 드럼만 연주되는 부분)를 떼어내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비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1970년대 후반 힙합 DJ들이 평크(Funk) 드럼 솔로 부분을 반복 재생하며 춤출 수 있도록 만든 데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자음악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 교과서에서는 브레이크비트의 개념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발전한 주요 파생 장르인 **정글(Jungle)**, **드럼 앤 베이스(Drum & Bass)**, **IDM(Intelligent Dance Music)**, **브레이크코어(Breakcore)**를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각 장르의 정의와 특징, 역사적 발전, 대표 아티스트/곡 (클래식/현대 구분), 스트리밍 링크, 장르 간 관계 및 차이, 그리고 입문자용 추천 감상 리스트와 청취 팁을 다루겠습니다.

### 브레이크비트 (Breakbeat)

#### 장르 정의 및 특징

브레이크비트는 샘플러 또는 편집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드럼 연주의 프레이즈(브레이크)를 잘라내어 시퀀서에서 재조립하는 음악 제작 기법이면서 그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 장르를 가리킵니다 <sup>1</sup>. 쉽게 말해, 곡 중간의 드럼 솔로 부분(브레이크)만 반복해서 비트를 만드는 것이 브레이크비트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비트 음악에서는 일반적인 4/4박자 댄스 음악과 달리, 드럼이 점프하거나 끊기는(syncopation) 리듬감을 줍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리듬 덕분에 음악에 독특한 그루브와 에너지가 생기며, 이는 힙합 비보잉이나 일렉트로닉 댄스 배틀 등에서 춤추기 좋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브레이크비트는 장르적으로 매우 폭넓어서, 평크, 재즈, R&B 등의 옛 녹음에서 추출한 드럼 브레이크 샘플을 적극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sup>2</sup>. 템포는 곡이나 세부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0~140 BPM 내외의 중간에서 빠른 박자를 사용하며, 4/4박의 킥 드럼이 매 박자마다 찍히는 하우스/테크노와 대비되는 유연한 리듬 패턴이 특징입니다.

#### 역사적 배경과 발전 흐름

브레이크비트의 뿌리는 1970~80년대 힙합 문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레이크댄서를 위해 DJ들이 제임스 브라운 등의 음반에서 드럼 브레이크 부분만 반복 재생하던 기법이 시초였고, 여기서 “break-beat”라는 용어도 유래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이 **브레이크비트**가 전자음악 프로듀서들에게도 주목받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영국 레이브(rave) 신(Scene)**에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행하던 **하드코어 테크노** 트랙에 브레이크비트를 접목시킨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는데, 1991년경 변칙적인 드럼 비트(브레이크)만으로 구성되고 묵직한 베이스라인에 자메이카 레게 샘플을 얹은 음악이 “**정글 테크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sup>3</sup>. 이는 곧 **정글(Jungle)** 장르로 발전하여 1992년쯤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았고, 영국의 레이브 파티와 해적 라디오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up>3</sup>. 한편, 1990년대 중후반에는 브레이크비트의 또 다른 흐름으로 “**빅 비트(Big Beat)**”라는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빅 비트는 힙합, 록 등의 요소를 섞은 무거운 브레이크비트에 신시사이저 리프를 결합한 스타일로, 캐미컬 브라더스, 프로디지, 팻보이 슬림 같은 아티스트들의 성공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누-스쿨 브레이크스(Nu-skool Breaks)**라는 이름으로 브레이크비트가 클럽 신에서 재조명되며, **스탠턴 워리어스나 플럼프 DJ즈** 등 프로듀서들이 이끄는 브레이크비트 전문 레이블과 파티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브레이크비트는 여러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으며, 힙합부터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초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아티스트 및 대표곡 (클래식 / 현대)

브레이크비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넓은 범주의 음악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대표곡들도 시대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래에는 **클래식 시대**의 브레이크비트 명곡들과, 비교적 **최근 시대**의 현대적인 브레이크비트 트랙을 나누어

소개합니다. 각 곡명 옆에는 초보자분들이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Apple Music과 Spotify 스트리밍 링크를 제공합니다.

• **클래식 대표곡:**

- 【24 † Apple Music】 【21 † Spotify】 **The Prodigy – 〈Firestarter〉 (1996)** : 거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브레이크비트가 결합된 곡으로, 90년대 **빅 비트** 열풍을 이끈 프로디지의 대표작입니다. 일렉트로닉에 펑크 록의 에너지까지 더해져 당시 메인스트림 차트까지 석권했습니다.
- 【79 † Apple Music】 【81 † Spotify】 **Bomfunk MC's – 〈Freestyle〉 (1999)** : 핀란드 출신 그룹 **봄 평크 MC's**의 세계적 히트곡으로, 힙합 보컬과 브레이크비트가 만나 경쾌하면서도 중독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아 브레이크비트의 대중화에 기여한 트랙입니다.

• **현대 대표곡:**

- 【26 † Apple Music】 【28 † Spotify】 **The Chemical Brothers – 〈Go〉 (2015)** : 90년대부터 활동해온 케미컬 브라더스가 2010년대에 발표한 곡으로, 브레이크비트 리듬 위에 세련된 신시사이저 패턴과 보컬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전적 브레이크비트 감성과 현대적 프로덕션의 조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추가 현대 예시) **Stanton Warriors – 〈Hopscotch〉 (2001)** : 2000년대 **누-스쿨 브레이크스씬**을 대표하는 듀오 스탠턴 워리어스의 곡으로, 평키한 베이스라인과 쫀득한 드럼 브레이크가 특징입니다. 영국 클럽 신에서 사랑받은 모던 브레이크비트 트랙 중 하나입니다.

## 장르 간 관계 및 차이점

브레이크비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이면서도, 여러 음악 장르의 기반 리듬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ハウス나 테크노**와 같은 4/4박자 댄스음악은 킥 드럼이 규칙적으로 찍히는 반면, 브레이크비트는 드럼 패턴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리듬에 변화를 줍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브레이크비트는 **힙합**에서는 기본 비트로, **정글/드럼앤베이스**에서는 고속의 변형 비트로, **빅 비트**나 **브레이크코어**에서는 공격적이고 실험적인 효과를 내는 요소로 각각 활용됩니다. 요약하면, **브레이크비트 = 변칙 비트**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등장하는 여러 파생 장르들은 이 **브레이크비트** 리듬을 각자의 속도와 분위기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컨대 **정글과 드럼 앤 베이스**는 브레이크비트를 매우 빠르게 돌린 경우이고, **빅 비트**는 비교적 중간 템포에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한 경우이며, **브레이크코어**는 브레이크비트를 극한으로 복잡하게 만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입문자 추천 감상 리스트 및 청취 팁

브레이크비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면, 먼저 **90년대 명곡들을** 들어보며 리듬의 느낌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The Prodigy**의 〈Breathe〉, **The Chemical Brothers**의 〈Block Rockin' Beats〉, **Fatboy Slim**의 〈The Rockafeller Skank〉 같은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 보십시오. 이러한 곡들은 브레이크비트의 특징인 쪼개진 드럼 리듬과 강렬한 베이스 그루브를 비교적 친숙한 멜로디와 함께 들려주기 때문에 입문자가 듣기에 좋습니다. 브레이크비트를 들을 때는 **드럼이 어떻게 패턴을 이루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곡의 박자를 천천히 세면서 드럼이 “쿵-짝-쿵-짝” 대신 “쿵-짝-짜쿵-짝”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걸 인식해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또한 브레이크비트는 **반복 속의 변주**가 묘미이므로, 곡이 전개되면서 드럼 패턴이 미세하게 변형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힙합이나 다른 장르의 익숙한 곡에서 **드럼 브레이크 부분만 떼어낸 샘플**이 브레이크비트 트랙에 쓰이기도 하므로, “이 드럼 어디서 들어봤지?” 하는 친근함을 느껴보는 것도 즐거운 포인트입니다 <sup>2</sup>.

# 정글 (Jungle)

## 장르 정의 및 특징

정글은 1990년대 초 영국에서 탄생한 전자음악 장르로, 아주 빠른 드럼 비트(브레이크비트)와 레게(Ragga) 스타일의 느리고 묵직한 베이스라인이 대비를 이루는 독특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sup>4</sup>. 정글 트랙의 템포는 대개 분당 150~170 BPM 정도로 전자음악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편이며, 드럼 패턴은 브레이크비트를 활용해 강한 당김음과 싱코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정글에서는 전설적인 “Amen 브레이크” 드럼 샘플이 빈번하게 쓰이는데, 이것이 정신없이 쪼개져 반복될 때 생기는 파괴력 있는 리듬이 정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둉둥거리는 서브베이스가 더해져, 겉으로 들리는 드럼 속도에 비해 베이스는 느리게 끌리는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레게, 딥(Dub) 등 자메이카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보컬 샘플과 효과음 (예: MC의 랩이나 던소ール(dancehall) 스타일의 외침 소리 등)이 입혀져, 정글 특유의 러프하고 어반(Urban)한 정서를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정글은 빠른 비트 + 느린 베이스 + 레게 분위기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장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sup>4</sup>.

## 역사적 배경과 발전 흐름

정글은 앞서 브레이크비트 역사에서 언급한 **영국 레이브 문화**의 산물입니다. 1990년대 초반, 런던 등의 언더그라운드 레이브 파티에서는 기존의 하드코어 테크노 음악에 흑인음악 요소를 섞으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브레이크비트 하드코어**라는 하위장르가 출현했습니다. 1991년 무렵부터 프로듀서들은 하드코어 트랙에 **브레이크비트(쪼개진 비트)**만을 사용하고, 여기에 **레게머핀(raggamuffin)** 보컬 샘플과 강력한 베이스라인을 얹은 새로운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sup>5</sup> <sup>6</sup>. 이러한 스타일은 처음엔 “정글 테크노”라 불렸지만 곧 독자적인 팬층(일명 **정글리스트**라고 불리는 청중)과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며 **정글(Jungle)**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았습니다. 1994년경 영국에서 정글 음악은 주류 차트에도 등장할 만큼 인기를 얻었고,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집니다 <sup>7</sup>. 특히 **골디(Goldie)**의 *Timeless* 앨범 발매(1995)는 정글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글 사운드가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일부 프로듀서들은 정글 초기의 레게/랩 영향력을 줄이고 비트를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글의 **후속 장르인 드럼 앤 베이스(DnB)**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정글과 드럼 앤 베이스는 긴밀한 관계로, **드럼 앤 베이스는 정글에서 파생되었지만 보다 광택 있고 모던한 스타일을 지향했습니다** <sup>4</sup>. 1990년대 말까지 “정글”이라는 용어는 점차 “드럼 앤 베이스”로 대체되어갔으나,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했습니다 <sup>4</sup>. 2000년대 이후로는 정글이라는 이름이 주로 초기 스타일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고, 현대의 음악들은 드럼 앤 베이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정글 리바이벌 움직임이 일어나, 원조 정글 사운드를 재현하거나 현대적으로 변형한 곡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이스 & 스테이터스(Chase & Status)**는 2019년 앨범 *RTRN II JUNGLE*를 통해 90년대 정글의 부흥을 시도하였고,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대표 아티스트 및 대표곡 (클래식 / 현대)

정글 장르는 그 태동기부터 많은 프로듀서와 DJ들의 참여로 풍부한 음악 유산을 남겼습니다. **클래식 정글** 시대(90년대 중반)의 대표곡들은 오늘날까지도 명곡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현대에 부활하거나 리메이크된 정글** 트랙들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표적인 곡들을 소개합니다.

### • 클래식 대표곡:

- 【30 † Apple Music】 【32 † Spotify】 **Goldie – <Inner City Life> (1995)** : 정글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은 명곡으로, 아름다운 보컬 멜로디와 혼란스럽게 쪼개지는 드럼 비트가 대조를 이룹니다. 골디 특유의 딥한 서브베이스 사운드와 도시적 분위기가 인상적이며, 정글의 클래식으로 손꼽힙니다 <sup>4</sup>.
- (참고) **Shy FX & UK Apache – <Original Nuttah> (1994)** : 정글 초기의 **라가/래가** 정글을 대표하는 트랙으로, 자메이카 DJ인 UK Apache의 파격적인 패토이스(patois) 랩과 숨 가쁜 브레이크비트 드럼이 어우러집니다. 영국 정글 신에서 최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싱글 중 하나입니다.

#### • 현대 대표곡:

- [34 † Apple Music] [36 † Spotify] Chase & Status – 〈Retreat2018〉 (feat. Cutty Ranks, 2018) : 과거 정글에 대한 헌사로 제작된 곡으로, 90년대 정글 보컬리스트 Cutty Ranks의 목소리와 전형적인 정글 드럼앤베이스 라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깨끗한 프로덕션으로 옛 정글 사운드를 재현하여 정글 리 바이벌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 (추가 현대 예시) Dub Phizix – 〈Marka〉 (2011) : 맨체스터 출신 프로듀서 Dub Phizix의 곡으로, 정글/드럼앤베이스와 딥스텝의 요소가 섞인 독특한 트랙입니다. 느린한 레게풍 보컬과 긴장감 넘치는 빠른 브레이크비트 드럼이 어우러져 있어, 전통 정글과 새로운 베이스 음악의 접점을 보여줍니다.

### 장르 간 관계 및 차이점

정글은 **드럼 앤 베이스의 직접적인 전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두 장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up>8</sup>. 흔히 정글 = 초기형 DnB로 설명되곤 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빠른 브레이크비트와 무거운 베이스라인입니다. 차이점을 꼽자면, 정글이 좀 더 레게/댄스홀 등 **자메이칸 사운드 시스템 문화의 색채**(러프한 샘플, 래가 보컬)를 짙게 품고 있는 반면, **드럼 앤 베이스는 시간이 지나며 이 요소들을 줄이고 세련되고 기술적인 사운드 디자인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sup>6</sup> <sup>9</sup>. 즉 90년대 중반의 정글 트랙들은 MC의 랩이나 레게 보컬 샘플, 총소리나 사이렌 같은 거친 효과음 등이 두드러지는데, 2000년대 이후의 드럼 앤 베이스 트랙들은 이런 요소 대신 멜로디와 음향적 정교함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템포 면에서는 정글과 드럼 앤 베이스 모두 유사한 범위이지만(약 160~175 BPM), 정글은 리듬 패턴이 비교적 **루즈하고 달리는 느낌**이 나는 반면 드럼 앤 베이스는 **빡빡하고 정교한 편곡**을 들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글은 그 태생상 **브레이크비트 하드코어**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다른 브레이크비트 계열인 **브레이크코어**와도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코어는 정글보다도 더욱 BPM이 높고 구조가 파괴적이어서 (후述), 정글의 리듬감과는 또 다른 극단을 보여줍니다.

### 입문자 추천 감상 리스트 및 청취 팁

정글 음악에 처음 입문한다면, **클래식 정글 트랙들과 드럼 앤 베이스 초기 명곡들을 함께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예컨대 LTJ Bukem의 〈Horizons〉 나 Omni Trio의 〈Renegade Snares〉 같은 곡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빠른 정글 비트가 조화를 이뤄 초보자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골디의 Timeless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정글의 다양한 면모를 예술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정글을 들을 때는 무엇보다 **드럼 패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빠른 전자음 드럼에 압도될 수 있지만, 베이스 라인이 의외로 느긋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럼과 베이스의 속도 차이**에서 오는 독특한 그루브가 정글의 묘미입니다. 리듬을 쫓기 벅찰 경우, 발상의 전환으로 **박자를 절반 속도로 느끼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BPM 170의 정글 트랙도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를 “쿵-차” 정도로 느리게 세면 체감 속도가 절반(85 BPM)으로 느껴져 한결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글 트랙에는 중간중간 **MC의 샤우팅이나 랩이 삽입되곤 하는데**, 이는 클럽이나 레이브 현장의 열기를 담은 것입니다. 이런 라이브한 요소들도 함께 즐기면서 들으면 정글 특유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드럼 앤 베이스 (Drum & Bass, DnB)

### 장르 정의 및 특징

드럼 앤 베이스는 정글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정립된 **전자음악 장르**로, 이를 그대로 **쪼개진 드럼비트 (drum)**와 **강렬한 베이스라인(bass)**이 핵심인 음악입니다. 템포는 대략 **165~185 BPM** 수준으로 매우 빠르며 <sup>10</sup>, 리듬적으로는 정글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비트**를 사용하지만 패턴이 한층 정교하고 세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드럼 앤 베이스의 드럼 패턴은 흔히 **2-step** 계열로 분류되는데, 칵과 스네어 드럼의 배치가 전형적 4/4박자의 다른 장르와 달리 “쿵……찌……쿵-쿵-찌……” 형태로 독특합니다. 이러한 리듬 덕분에 DnB 트랙은 숨가쁘면서도 **스릴 넘치는 추진력을** 가집니다. 베이스 사운드는 주로 **아주 낮은 주파수의 서브베이스**로 설계되며, 클럽의 대형 사운드 시스템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묵직하게 울립니다. 정글이 레게틱한 느슨함이 있었다면, 드럼 앤 베이스는 **공상과학적이거나 산업적인(Industrial)** 분위기의 날카로운 신스 음향과 이질적인 FX 효과들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리퀴드 펑크(Liquid funk)**처럼 재즈/소울 멜로디를 얹은 부드러운 하위장르부터 **뉴로펑크(Neurofunk)**처럼 공격적이

고 테크니컬한 하위장르까지, 음악적 스펙트럼도 폭넓습니다. 요약하면, 드럼 앤 베이스는 **초고속의 브레이크비트 드럼**과 **극저음의 베이스라인**으로 청각적 쾌감을 극대화한 전자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p>10</sup>.

## 역사적 배경과 발전 흐름

드럼 앤 베이스의 역사는 곧 정글의 후반부 역사와 맞물립니다.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정글 음악이 유행하던 시기, 일부 프로듀서들과 팬들은 정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보다 **세련된 사운드**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글 음악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범죄나 악물 문화**와 연관되어 부정적 인식이 커지자, 음악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열고자 한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sup>11</sup>. 이에 따라 프로듀서들은 정글에서 두드러졌던 레게 보컬 샘플이나 댄스홀 스타일을 걷어내고, **순수한 비트와 베이스의 쾌감**에 집중한 트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sup>11</sup>. 점차 “정글” 대신 “드럼 앤 베이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1995~96년경부터는 정글과 DnB를 구분하여 부르는 분위기가 자리잡았습니다.

1997년, **러니 사이즈(Roni Size) & Reprazent**의 앨범 **New Forms**이 머큐리 프라이즈를 수상하면서 드럼 앤 베이스는 평단의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주류 음악씬에서도 관심을 끌게 됩니다. 90년대 후반에는 **LTJ Bukem, Grooverider, Fabio** 등의 아티스트와 DJ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DnB를 선보이며 씬을 확장시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하이 콘트라스트(High Contrast)**나 **Pendulum**처럼 보다 대중적인 멜로디와 록/팝 요소를 결합한 DnB 곡들이 나오면서, 드럼 앤 베이스는 일렉트로닉 음악 페스티벌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DnB가 팝 차트에 오르는 일도 찾아졌는데, 예컨대 **DJ Fresh**의 〈Hot Right Now〉 (2012)는 DnB 곡으로는 최초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DnB는 시대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며 **서브컬처에서 메인스트림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2010년대 중반 **EDM** 붐 속에서 드럼 앤 베이스는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영국과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중심으로 굳건한 팬층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넷스카이(Netsky), Wilkinson, Chase & Status** 등의 아티스트들이 멜로딕하고 세련된 DnB 트랙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DnB가 다시금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진스 - 〈Ditto〉 (2022)**와 같이 K-Pop에서도 드럼 앤 베이스 리듬을 차용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DnB의 영향력이 글로벌 팝 음악에도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표 아티스트 및 대표곡 (클래식 / 현대)

드럼 앤 베이스 장르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 아티스트로는 **Goldie, Roni Size, Andy C** 같은 90년대 거장 DJ/프로듀서부터, **Pendulum, Chase & Status, Sigma** 같은 2000~2010년대의 스타들까지 다양합니다. 아래에는 DnB의 주요 명곡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 클래식 대표곡:

- 【38 † Apple Music】 【40 † Spotify】 **Roni Size / Reprazent – 〈Brown Paper Bag〉 (1997)** : 올리는 베이스와 재즈 샘플, 그리고 경쾌한 브레이크비트 드럼 프로그래밍이 어우러진 트랙으로, 드럼 앤 베이스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런던 일렉트로니카 신의 명문 레이블 Talkin' Loud에서 발매되어 DnB의 위상을 높인 곡입니다.
- (참고) **Adam F – 〈Circles〉 (1995)** : 몽환적인 신스 멜로디와 부드러운 보컬이 인상적인 트랙으로, **인텔리전트 드럼 앤 베이스**의 걸작으로 불립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DnB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대중들에게도 사랑받은 초기 명곡입니다.

### • 현대 대표곡:

- 【42 † Apple Music】 【44 † Spotify】 **Chase & Status – 〈Blind Faith〉 (feat. Liam Bailey, 2011)** : 소울풀한 남성보컬과 서정적인 멜로디, 그리고 탄탄한 드럼앤베이스 비트가 결합된 곡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히트하여 DnB를 대중에 각인시킨 작품입니다. 2010년대 UK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DnB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추가 현대 예시) **Pendulum – 〈Watercolour〉 (2010)** :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밴드 펜듈럼의 곡으로, 록 밴드 편성과 DnB를 접목시킨 독특한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극적인 보컬 멜로디와 폭발적인 드롭(drop) 파트가 있어, 페스티벌 찰나에 관객들을 열광시키는 DnB 트랙의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 장르 간 관계 및 차이점

드럼 앤 베이스는 정글에서 분화되어 나왔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자적인 거대 장르로 자리잡았습니다. 정글과의 관계는 앞 장에서 다른 바와 같이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정글 프로듀서들이 그대로 DnB 프로듀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⑨. 두 장르 모두 브레이크비트를 쓰고 BPM도 유사하지만, 드럼 앤 베이스가 좀 더 현대적이고 깔끔한 프로덕션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드럼 앤 베이스는 이후 등장한 여러 장르들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컨대 **UK 개러지(2-step)** 음악은 90년대 말 DnB와 교류하며 발전했고, **브레이크비트 하드코어**의 일부는 정글이 아닌 DnB 노선으로 진화했습니다. **IDM** 장르 내에서도 Squarepusher나 Aphex Twin 등의 음악은 드럼 앤 베이스의 리듬을 실험적으로 활용한 **드릴 앤 베이스(drill 'n' bass)**라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⑫. 반대로 드럼 앤 베이스도 **재즈, 소울, 락, 팝** 등 다양한 음악과 혼합되면서 스스로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다른 전자음악 장르와 비교하면, DnB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속도와 베이스입니다**. 가령 **하우스/트랜스**가 128~140 BPM대의 킥 드럼 중심 4/4 비트라면, DnB는 170 BPM 전후의 조개진 박자와 강한 저음 베이스가 핵심입니다. **하드스타일/캐버** 같은 장르의 BPM도 비슷하게 높지만 4박 리듬이어서 느낌이 다르고, **브레이크코어**는 BPM은 더 높아도 구조가 무정형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짜인 DnB와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요컨대 드럼 앤 베이스는 일렉트로닉 음악 장르들 중에서도 **리듬의 쾌감과 베이스의 물리적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린**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 입문자 추천 감상 리스트 및 청취 팁

드럼 앤 베이스에 처음 입문할 때는, 먼저 **멜로디가 가미된 DnB** 곡들로 시작해보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Netsky**의 〈Come Alive〉나 **Matrix & Futurebound**의 〈All I Know〉처럼 보컬과 선율이 있는 리퀴드 평크 스타일 곡들은 귀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Pendulum**의 〈Propane Nightmares〉나 **Sub Focus**의 〈X-Ray〉처럼 락/EDM 요소가 섞인 곡들로 넘어가며 DnB의 다양한 면모를 접해보세요. 더 나아가 **Noisia**의 작품이나 **S.P.Y, Calibre** 등의 프로듀서 곡들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DnB를 들을 때 팀은, 처음에는 리듬이 너무 빨라서 당황할 수 있으니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를 한 마디에 두 번씩만 (half-time)**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BPM 170의 곡도 체감상 85 BPM처럼 느껴져 박을 잡기 수월합니다. 익숙해지면 다시 원래 빠르기로 들어보면서, 세세하게 조개지는 **하이햇과 쉐이커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루브를 느껴보세요. 또 하나 즐길 포인트는 **드롭(drop)**이라 불리는 부분인데, 곡 중간 빌드업을 거쳐 드럼과 베이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때 강력한 베이스 진동이 주는 전율을 느끼면 드럼 앤 베이스의 매력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K팝이나 게임 음악 등에도 DnB 리듬이 등장하므로, 친숙한 음악에서 “쿵-착-쿵쿵-착” 패턴이 들리면 “아, DnB 리듬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귀를 길들여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

## IDM (Intelligent Dance Music)

### 장르 정의 및 특징

**IDM (Intelligent Dance Music)**은 1990년대 초 영국과 북미 전자음악 신(scene)에서 나타난 독특한 스타일로, 이름의 뜻 그대로 “지적인 무용 음악”, 즉 **감상용 실험적 전자음악**을 일컫습니다. 다소 엉뚱한 장르 명이지만, 핵심은 **댄스 음악의 리듬과 사운드를 활용하면서도 춤추기보다 감상을 목적으로 한 실험적인 음악**이라는 점입니다 ⑫. IDM 음악은 특정한 리듬 패턴이나 BPM에 얹매이지 않고 **아티스트의 개성적 실험**에 따라 자유롭게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곡은 부드러운 **앰비언트 패드**와 변칙 비트가 섞여 몽환적이고, 다른 곡은 날카로운 전자음과 복잡한 드럼 프로그래밍으로 가득 차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IDM에서 자주 활용되는 요소로는 **글리치(glitch)** 효과(일부러 빠걱거리거나 잡음처럼 만드는 소리), **불규칙한 박자 변화**, 그리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음색과 현대음악적 멜로디** 등이 있습니다. 특히 IDM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브레이크비트나 정글/드럼앤베이스의 빠른 리듬**을 차용하여, 이를 극도로 해체하거나 복잡하게 염두에 두는 **드릴 앤 베이스(drill 'n' bass)** 스타일의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IDM의 또 다른 면에서는 **앰비언트, 테크노, 일렉트로, 심지어 클래식 음악까지 다양한 발상과 분위기를 받아들입니다** ⑫. 한마디로 IDM은 **장르의 규칙을 깨는 장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사운드 디자인과 자유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강조되는 전자음악입니다. 재미있게도, 정작 많은 IDM 아티스트들은 이 명칭을 거부하거나 “**Braindance**” 같은 다른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⑯, 편의상 본 교재에서는 IDM으로 통일하여 부르겠습니다.

## 역사적 배경과 발전 흐름

ID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영국의 전자음악 레이블 **Warp 레코드**가 주도한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2년 Warp 레코드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표하며 “지능적인 테크노”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이 시초인데 <sup>13</sup>, 여기에 수록된 음악들이 지금의 IDM 스타일과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이 컴필레이션에는 **에이펙스 트윈(Aphex Twin)**, 더 오브(The Orb), 앤드류 웨더울 등의 실험적인 트랙이 담겨 있었고, 클럽보다는 헤드폰으로 감상하기 좋은 전자음악이라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1993년에 미국의 전자음악 팬들이 “IDM 리스트”라는 온라인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며 **Intelligent Dance Music**이라는 명칭이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sup>13</sup>. 90년대 중반은 IDM 전성기로, 영국의 Warp나 Rephlex 레코드 외에도 미국, 일본 등지에서 관련 아티스트들이 활발히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펙스 트윈**, **오텟레(Autechre)**, **스퀘어푸셔(Squarepusher)**, **μ-Ziq(뮤직)** 등이 이 시기 명반들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sup>14</sup>. 이들의 음악은 테크노, 정글, 일렉트로 등의 요소를 뒤섞고 뒤틀며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DM이라는 용어는 다소 유행에 뒤쳐진 것으로 여겨져, 많은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그냥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라 부르거나 장르 구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IDM 스타일이 힙합 비트 음악(일명 글리치홉, LA 비트썬 등)이나 영화/게임 음악에도 영향을 주며 형태를 바꿔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시그널(Sigur Rós)**, 톰스(Thom Yorke) 등 락/팝 뮤지션들이 IDM적인 접근을 도입하기도 했고, 플라잉 로터스(Flying Lotus)나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Oneohtrix Point Never) 같은 2010년대 아티스트들은 IDM과 힙합, 앰비언트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IDM의 정신을 잇는 실험 전자음악 전반을 지칭하는 말로서 IDM이 다시 쓰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2020년대의 플럭서스(Flume)나 비조(Bijouxx) 같은 프로듀서들의 작품이 “IDM적”이라고 평가받는 식입니다. 결국 IDM은 하나의 시대라기보다, 전자음악 창작자들의 태도와 접근법\*\*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아티스트 및 대표곡 (클래식 / 현대)

IDM 분야에서는 특정 히트곡보다는 앨범 단위의 예술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해를 돋기 위해 몇몇 곡을 짚어보겠습니다. **클래식 IDM**으로는 90년대 중후반에 나온 혁신적인 트랙들이, **현대 IDM**으로는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진일보한 곡들이 있습니다.

### • 클래식 대표곡:

- 【46 † Apple Music】 【48 † Spotify】 **Aphex Twin – 〈Windowlicker〉 (1999)** : 복잡한 드릴 앤 베이스 리듬과 섬뜩하면서도 악살스러운 분위기의 신스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뮤직비디오도 매우 유명하며, 에이펙스 트윈 특유의 유머와 실험정신이 잘 드러난 IDM 명곡으로 손꼽힙니다.
- (참고) **Autechre – 〈Eggshell〉 (1994)** : IDM-duo 오텟레의 초기 작품으로, 몽환적인 패드 사운드 위에 불규칙적으로 튕는 리듬이 전개됩니다. 큰 변화 없이도 미묘한 질감 변화만으로 긴장감을 주는 구성은 IDM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텍스처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 • 현대 대표곡:

- 【50 † Apple Music】 【52 † Spotify】 **Aphex Twin – 〈minipops 67 [120.2]〉 (2014)** : 13년 만에 발표된 에이펙스 트윈의 정규 앨범 Syro의 리드 트랙으로, 비교적 부드러운 비트와 몽롱한 보컬 샘플 조각들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그의 옛날 작품들에 비해 멜로디컬하고 듣기 편한 편이지만, 여전히 독창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역시 Aphex Twin”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up>12</sup>.
- (추가 현대 예시) **Oneohtrix Point Never – 〈Sticky Drama〉 (2015)** : 미국 아티스트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곡으로, 왜곡된 보컬 샘플과 하드한 전자음이 뒤엉킨 혼돈스러운 구성입니다. 현대 IDM/실험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적 경계를 허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일렉트로니카와 노이즈, 팝 아트가 결합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 장르 간 관계 및 차이점

IDM은 태생부터 여러 전자음악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합물이었습니다. Stylistic origins(스타일 기원)을 보면 애시드 하우스, 앰비언트 테크노, 디트로이트 테크노, 브레이크비트 등 다양한 장르 문화와 사운드 팔레트를 기반으로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up>12</sup>. 따라서 IDM은 정글/드럼앤베이스, 테크노, 하우스 등 주변 장르들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M 트랙 중에는 느린 **다운템포 비트**로 앰비언트적 분위기를 내는 것이 있어 **트립합**이나 **포스트록**에 가까운 것도 있고, 반대로 초고속 브레이크비트로 **브레이크코어나 노이즈** 음악에 버금가는 혼돈을 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IDM을 다른 장르와 구분 짓는 주요 차이는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 아니다**”라는 점과 **창작자의 실험 의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가령 테크노나 하우스는 클럽에서 관객들의 춤을 염두에 두지만, IDM은 **감상자의 사유와 반응**을 염두에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IDM 아티스트들은 장르적 문법을 일부러 비틀거나 해체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같은 **브레이크비트**를 써도 정글/드럼앤베이스처럼 일관되게 비트를 타지 않고 갑자기 템포를 바꾸거나 엇박으로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정리하면, **IDM = “장르의 규칙을 깨는 전자음악”**으로서, 그 유연함과 추상성 면에서 다른 전자음악 장르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IDM은 **정형화된 비트나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듣는 이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한 리듬 패턴에 지적 도전을 가하는 음악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입문자 추천 감상 리스트 및 청취 팁

IDM에 입문하려면 우선 **에이펙스 트윈(Aphex Twin)**의 주요 작품들을 권합니다. 그의 초기 앰비언트 테크노 **Selected Ambient Works 85-92**는 비교적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운드로 구성되어 IDM 초심자도 편히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Boards of Canada**의 **Music Has the Right to Children** 앨범도 따뜻한 아날로그 음향과 몽환적인 멜로디로 유명하며, IDM의 서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편 **Squarepusher**의 **〈Come On My Selector〉** 나 **Venetian Snares**의 일부 작품처럼, 브레이크비트가 미친 듯이 쪼개지는 곡들도 한두 개 들어보면 IDM의 광기 어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IDM을 감상할 때는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기보다는 집중해서 음향 하나하나를 음미해보길 추천합니다**. 겉보기엔 혼란스럽더라도 자세히 들어보면 숨어있는 패턴이나 반복이 발견될 때 쾌감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양질의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들으세요. IDM 프로듀서들은 소리의 입체감과 질감을 섬세하게 디자인하므로, 좋은 재생장비로 들을수록 새로운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상상해보는** 것도 IDM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곡 자체가 영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머릿속 MV를 그려보면 재미가 배가됩니다. 끝으로, IDM이라는 범주에 너무 얹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엔 IDM의 영향으로 많은 **일렉트로닉/힙합 아티스트들이 실험적인 트랙**을 내놓고 있으므로, 익숙한 아티스트의 색다른 곡들을 찾아보며 차츰 범위를 넓혀보세요.

---

## 브레이크코어 (Breakcore)

### 장르 정의 및 특징

브레이크코어는 1990년대 중후반에 정글, 하드코어 테크노, 드럼 앤 베이스 등의 극단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하드코어 전자음악 장르**입니다 <sup>15</sup>. 한마디로 브레이크코어는 “**정글/드럼앤베이스보다 더 빠르고 더 혼란스러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브레이크비트 드럼 패턴**을 사용하며, **아주 높은 템포**(보통 180~200BPM 이상)로 곡이 전개됩니다 <sup>15</sup>. 드럼 샘플은 주로 정글에서 즐겨 쓰인 Amen 브레이크나 다양한 횟크/힙합 드럼브레이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정상적인 박자로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분해하여 **총알이 튀듯**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코어의 리듬은 일종의 **혼돈 속의 질서**를 띠며, 처음 들으면 정신없이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유심히 들으면 작곡가가 심어둔 패턴 변화와 세부 편곡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운드 면에서는 **디스토션**(음의 일그러뜨림)과 **과장된 샘플링**이 두드러지는데, 영화 대사나 게임/애니메이션 소리, 팝송 등 **온갖 잡다한 샘플들이** 높은 템포의 비트 위에서 콜라주(collage)처럼 등장합니다. 어떤 곡은 귀여운 소녀 보컬 뒤에 갑자기 폭발음과 극한 드럼이 튀어나오고, 또 어떤 곡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 아름다운 현악 선율을 넣다가 이를 산산조각내기도 합니다. 요컨대 브레이크코어는 **음악적 무질서 속의 쾌감**을 추구하는 장르로서, 전자음악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고 실험적인 축에 속합니다 <sup>16</sup>.

## 역사적 배경과 발전 흐름

브레이크코어는 자리적으로 **유럽의 언더그라운드 장르**로 성장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하드코어 테크노(개버 등) 신과 정글 신이 교차하던 중, 일부 프로듀서들이 두 장르의 **가장 극단적인 면만을 결합한 음악**을 시도했습니다 <sup>17</sup> <sup>18</sup>. 이를테면 하드코어 테크노의 초고속 BPM과 왜곡된 킥드럼에, 정글의 브레이크비트 난장을 합치는 식입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프랑스의 **Peace Off 레코드**, 독일의 **Digital Hardcore Recordings(DHR)** 등에서 초기 브레이크코어 아티스트들의 음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up>17</sup>. 특히 DHR를 이끌던 **아렉 앰파이어(Alec Empire)**는 밴드 **아타리 틴에이지 라이엇(Atari Teenage Riot)**을 결성하여 **디지털 하드코어**라는 이름으로 평크와 브레이크비트를 융합한 음악을 선보였고, 이는 브레이크코어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캐나다** 출신 프로듀서 **베네티안 스네어즈(Venetian Snares)**가 등장해 브레이크코어를 한층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sup>19</sup>. 클래식 음악 샘플과 초고속 드릴 비트를 결합한 그의 앨범 *Rossz Csillag Alatt Született* (2005)는 브레이크코어 명반으로 꼽히며, 많은 추종자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 영국의 **Bangface** 파티나 벨기에의 **Breakcore Gives Me Wood** 같은 이벤트를 통해 전세계 브레이크코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Shitmat, DJ Scotch Egg, Kid606**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씬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sup>19</sup>.

2010년대 이후로는 브레이크코어가 이전만큼 활발한 신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밈(meme)** 문화나 **애니메이션 AMV** 등에 곡들이 쓰이며 새로운 청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코어의 영향은 **나이트코어(Nightcore)**, **스피드코어(Speedcore)**, **프로그레시브 브레이크** 등 다양한 빠른 비트 음악에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Igorrr**처럼 브레이크코어에 메탈과 바로크 음악까지 접목한 아티스트가 등장하여, 장르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브레이크코어는 소수 매니아들의 장르로 머물렀지만, **실험적 음악의 최전선**으로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표 아티스트 및 대표곡 (클래식 / 현대)

브레이크코어는 다른 장르에 비해 널리 알려진 곡이 적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 클래식으로 통하는 트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곡을 시대별로 소개합니다.

### • 클래식 대표곡:

- 【54 † Apple Music】 【56 † Spotify】 **Venetian Snares – 〈Hajnal〉 (2005)** : 브레이크코어의 교과서 격인 베네티안 스네어즈의 명곡으로, 헝가리 전통 합창 샘플과 광기 어린 드럼 편집이 교차합니다. 아름답고도 파괴적인 분위기로 “혼돈 속의 질서”라는 브레이크코어 미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참고) **Atari Teenage Riot – 〈Speed〉 (1995)** : 디지털 하드코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곡으로, 날카로운 노이즈와 평크적인 보컬 샤우팅, 그리고 폭주하는 브레이크비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코어의 밑바탕이 된 90년대 사운드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트랙입니다.

### • 현대 대표곡:

- 【58 † Apple Music】 【60 † Spotify】 **Igorrr – 〈Very Noise〉 (2020)** : 프랑스 아티스트 **이고르르 (Igorrr)**의 곡으로, 브레이크코어와 헤비 메탈, 클래식이 혼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들려줍니다. 1분 47초의 짧은 러닝타임 동안 웃음을 유발하는 닦 읊음소리부터 살벌한 기타리프까지 종잡을 수 없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유튜브 등지에서 바이럴 히트를 치며 브레이크코어가 대중에게 소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추가 현대 예시) **Goreshit – 〈藍天 (Anthem)〉 (2010)** : 일본 애니메이션 샘플과 J-팝 멜로디를 브레이크코어 비트와 결합한, 일명 애니메 브레이크코어 스타일의 곡입니다. 귀여운 여성 보컬이 반복되다가 점차 해체되는 전개로, 브레이크코어가 서브컬처와 만나 변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르 간 관계 및 차이점

브레이크코어는 여타모로 **정글/드럼앤베이스와 하드코어 테크노의 극단을 혼합한 장르입니다** <sup>20</sup>. 따라서 정글/DnB와 같은 뿌리(브레이크비트 드럼)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표현 수위는 훨씬 과격합니다. 예를 들어 정글이나 DnB가 Amen 브레이크를 빠르게 돌려도 기본적인 박자감은 유지하지만, 브레이크코어는 그 박자감마저 산산조각냅니다. 또한

DnB가 클럽에서의 춤과 DJ 믹싱을 염두에 두는 반면, 브레이크코어는 **감상자에게 충격을 주는 일회성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IDM의 실험성과도 통하며, 실제로 IDM 레이블에서 브레이크코어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Planet Mu 레코드). 브레이크코어와 가까운 장르로는 **스피드코어나 개버(gabber)** 같은 초고속 테크노 계열이 있지만, 이들은 4/4 키드럼이 주도하기에 리듬의 복잡성에서는 브레이크코어와 다릅니다. 브레이크코어는 리듬 면에선 정글/DnB와 닮았으나, 음향 미학적으로는 **펑크/노이즈 음악의 반항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쉽게 말해, 브레이크코어는 “**전자음악계의 펑크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음악 문법을 부수고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장르로, 다른 장르들과 차별화됩니다.

## 입문자 추천 감상 리스트 및 청취 팁

브레이크코어는 워낙 극단적인 사운드라 처음에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문자께는 **멜로디와 조화를 이룬 비교적 듣기 편한 곡들**로 시작해볼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Venetian Snares**의 〈Szamár Madár〉는 현악 멜로디가 아름답게 흐르다가 브레이크비트가 터져 나오는 곡으로, 브레이크코어의 폭력성 속에서도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桜庭統** 등의 게임음악을 리믹스한 브레이크코어 트랙이나, **M1dy** 같은 J-core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멜로디 라인이 뚜렷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브레이크코어를 들을 때는 **볼륨**에 유의하세요. 과도한 고음과 저음이 섞여 있어 너무 크게 들으면 귀가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약간 낮춘 볼륨에서 시작해 익숙해지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음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 하지 말고**, 부분부분 훌러나오는 **샘플과 비트의 순간**을 즐겨보세요. 마치 추상화 그림을 감상하듯, “무엇을 표현하려는 걸까?” 상상하면서 듣다 보면 혼돈 속에서도 작가의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BPM이 워낙 빠르니 박자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스피커 진동에 몸을 맡긴다는 느낌**으로 감상하면 의외로 스트레스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코어 커뮤니티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므로, 유튜브나 밴드캠프(Bandcamp) 등에서 “Breakcore”를 검색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트랙을 샘플로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취향에 맞는 **혼돈의 명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브레이크비트와 그 파생 장르들에 대한 입문 설명을 마칩니다. 정리하자면, **브레이크비트**는 현대 음악에서 리듬 혁명을 일으킨 개념이고, **정글과 드럼 앤 베이스**는 이를 기반으로 빠른 BPM과 강한 베이스를 추구한 장르, **IDM**은 브레이크비트를 비롯한 전자음악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탐구한 장르, **브레이크코어**는 브레이크비트의 혼돈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각 장르의 대표곡들을 들으면서 노트에 언급된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본다면 금세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 감상은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우선이니,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운드를 접하고 몸이 반응하는대로 자유롭게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브레이크비트 리듬의 매력과 발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음악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

### ① 브레이크비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C%9D%B4%ED%81%AC%EB%B9%84%ED%8A%B8>

### ② Breakbeat | Splice

<https://splice.com/sounds/genres/breakbeat/overview>

###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드럼 앤 베이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93%9C%EB%9F%BC\\_%EC%95%A4\\_%EB%B2%A0%EC%9D%B4%EC%8A%A4](https://ko.wikipedia.org/wiki/%EB%93%9C%EB%9F%BC_%EC%95%A4_%EB%B2%A0%EC%9D%B4%EC%8A%A4)

### ④ 정글 (음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A%B8%80\\_\(%EC%9D%8C%EC%95%85\)](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A%B8%80_(%EC%9D%8C%EC%95%85))

### ⑫ ⑬ ⑭ Intelligent dance music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lligent\\_dance\\_music](https://en.wikipedia.org/wiki/Intelligent_dance_music)

### ⑯ ⑯ ⑯ ⑯ ⑯ ⑯ 브레이크코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C%9D%B4%ED%81%AC%EC%BD%94%EC%96%B4>